

사회 밖으로 내몰렸던 입양아들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당당히 자신을 밝히고 친부모를 찾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해 그동안의 힘들었던 세월을 회상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렸던 부모들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부모님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입양아’란 이름이 큰 흉이 아닌 세상입니다.

최근 들어 입양이야기가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 신문 등에 자주 소개됩니다. 국내 입양아수가 20여만 명에 달하는 시대. 어린이책도 예외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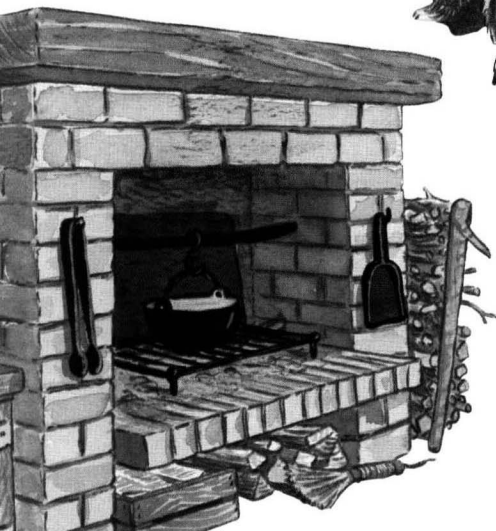
《진짜동생》은 우리보다 훨씬 개방적인 서구에서도 입양은 예민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 주인공의 집에 걸린 가족사진을 보니 사진 속에 등장하는 두 마리 곰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게 눈에 띕니다. 무늬가 있는 반달곰과 그냥 곰. 사진 속의 귀여운 꼬마곰 지즐레트는 어느 날 자신과 오빠의 모습이 다르단 사실에 의문을 품지요. 진흙에 빠지면 오빠처럼 반달곰의 몸색을 가질 수 있을까 엉뚱한 행동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오빠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잔뜩 토라진 꼬마곰의 마음을 되돌린 한 마디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일”이란 충고.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무섭다 했던가요? 자신의 뿌리 찾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지켜봐 준 새로운 가족들을 잊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잔뜩 화가나 “차라리 태어나지 말고 알 속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지즐레트의 발언에 “나 왜 낳았어?”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이젠 비밀이 아니야》는 입양을 공론화시키는 문제작입니다. 공개입양을 소재로 한 총 4편의 동화들은 모두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제에 접근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야》는 뒤늦게 아이를 입양하게 된 부모님이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가며 입양 아들 원재를 키우는 이야기. 원재는 젊고 생기 있는 친구의 부모님을 부러워하지만 《진짜동생》의 지즐레트처럼 길러준 부모의 소중함, 내 가족의 소중함을 차츰 깨닫게 됩니다. 《까미는 울지 않아요》는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파양당하는 아이들의 아픔을 애완견 ‘까미’의 버려짐으로 형상화합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던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서 화목을 되찾지만 자식처럼 사랑했던 애완견 까미를 보내게 된다는 사연이지요. 실제 불임으로 인해 입양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다는 작가는 입양의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동화적으로 형상화해 우리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최근 우리나라 장애우를 입양했던 외국인 부모가 입양자녀의 고국땅인 제주도에서 자신을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겨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이라 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별난 아이’는 아닙니다. 가족형태가 점점 더 새로워지는 때,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두 권의 책. 《진짜동생》은 어린 꼬마들에게, 《이젠 비밀이 아니야》는 성숙한 꼬마들에게 선물해 주세요. ■

김청연 기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어린이 경제동화도 사랑받는 요즘입니다. 무조건 아껴쓰라고 말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돈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더 중요하지요.

단언컨대 《화폐로 배우는 세계의 문화1,2》는 지금껏 나왔던 돈 관련 어린이책 중 가장 특별한 책입니다. 저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는 배원준 씨. 그가 만든 '세계화폐박물관 사이트(www.numerousmoney.com)'는 정보통신부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모아둔 전 세계의 화폐를 살펴봄에 각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전통, 역사 등을 살펴봅니다. 화폐를 통해 세계여행도 하고, 역사도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책이지요.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국민이 가장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인물들. 특히 위조를 막기 위해 수염을 기른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 합니다. 국가별 화폐의 특징을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프랑스 화폐에는 생텍쥐베리와 어린왕자가 그려져 있고, 다민족 공동체인 인도의 화폐에는 무려 15가지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예술전통이 강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예술가들이 화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이 다반사고, 독일 화폐에는 수학자나 과학자의 초상이 많습니다. 반면 미국 화폐의 주인공은 대부분 대통령, 중국 화폐에는 각 민족을 대표하는 이들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가 짧은 신생국가 미국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원인을 화폐에 반영했고,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민족 화합을 꾀하려는 의도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책은 화폐가 돈 이전에 문화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십 원짜리 동전에도 무수한 상징적 의미들이 담겨 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돈을 어떻게 절약하고 써야 하는지를 배워야 할 때. 《엄마, 전 행복한 부자가 될래요!》는 생활 속에서 절약을 실천하는 학생 짚돌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카페에서 활동중인 소금국학생들의 절약생활 이야기를 토대로 했기에 현장감이 넘쳐납니다.

이 책의 장점은 돈을 절약하며 쓰는 법을 다양한 박스를 활용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업형식으로 돈 절약 강의를 듣습니다. 간혹 어렵다 느낄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 '소금 한 스푼 풍덩'이라는 포인터 정리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 유용한 책은 아닙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도와주세요" 코너는 경제교육이란 부모와 아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요.

고물상에 안 쓰는 물건을 보내고, 쿠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생활 속 절약법도 소개하지만 돈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고, 북한과 남한의 돈 그리고 소비수준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살피는 코너도 절약법 못지않게 유용합니다. 먹고, 입고, 갖고 싶은 것 많은 아이들. 첫 용돈 주기 전에 사줘야 할 책들입니다. **★**

김창연 기자



《**화폐로 배우는 세계의 문화 1,2**》  
배원준 지음 | 가교출판 |  
각권 216쪽 내외 | 각권 값 9,500원

《**엄마! 전 행복한 부자가 될래요!**》  
이보슬 글 | 구성·다음카페 '짚돌이'  
역음 | 영진닷컴 | 294쪽 | 값 9,800원

